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4호 [무게 제23106호] 주체99(2010)년 6월 3일 (목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에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에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닌 예술선전대원들의 가슴은 끝없는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전체 관람자들은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지대한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인민군 대장 윤정린동지, 상장 김성덕동지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성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경희동지, 제1부부장들인 김경욱동지, 리계강동지, 리제일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예술선전대원들은 여성 5중창 <장군님 위하여 복무함>, 남성독창과 혼성 8중창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리>, 대화시 <위대한 헌신의 자욱>, 어은금과 여성 6중창 <내 조국의 밝은 달아>, 회상기선동 <동지들! 이 충을 받아주!>, 전시가요편곡 <전호숙의 나의 노래>, <결전의 길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중창이야기 <군대는 규률 규율은 준대>, 선동곡 <같이 감시다>, 여성 3중창 <내 나라는 일심단결의 대가정>, 선동이야기 <신념의 차단봉은 울릴 수 없다>, 합창 <승리의 길>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펼치였다.

시종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상이 나타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위대한 명장의 손길아래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난 백두산혁명강군의 필승불패의 위력과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기어이 완성하고야말 인민군군인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출연자들은 심장의 피를 끓게 하는 격동적인 공연을 통하여 군인들의 심장마다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심어 주며 선군시대의 나팔수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군인예술인들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관람자들은 승리의 합성인양 힘있게 울려 퍼지는 충성의 노래, 신념의 노래를 들으며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무적의 대오로, 사상의 강군으로 키워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와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한몸 다 바쳐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혁명적군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이 도도히 맥박치고 만사람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는 전투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 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어버이장군님을 우리러 떠치는 인민군장병들의 심장의 웨침으로 하여 장내는 충성의 대하마냥 설레이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담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에 예술선전대원들이 우리 군인들의 무한대한 정신력과 고상한 도덕풍모, 보람찬 군부생활을 그대로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한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이 공연을 통하여 투철한 수령관과 혁명관을 지니고 광만과 희열에 넘쳐 역세게 전진하는 우리 혁명군대의 참모습을 잘 펼쳐보였다고 하시면서 선군시대의 새 문화창조자들인 그들의 혁명적인 창작기풍을 거듭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에 예술선전대의 공연은 최근에 진행된 예술선전대공연중에서 제일 훌륭한 최상급의 공연이라고 하시면서 특출한 성과를 이룩한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최고사령관의 특별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 육탄정신을

철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한 불사신의 용사들로 자라났다고 하시면서 이 무적의 대군이 조국방선을 굳건히 사수하고있기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커다란 감화력과 높은 호소성을 가지고있는 예술선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에 예술선전대원들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젖기 위한 최후돌격전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친히 공연을 보아주시고 위훈의 한길로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환절은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속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예술선전활동을 진공적으로 벌려 군인들의 혁명교양에 적극 이바지해갈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지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비서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아바나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비서
구바공화국 내사회 위원장
구바공화국 내각 수장
라울 까스트로 루쓰동지

우리는 생일을 맞은 당신에게 열렬한 축하와 동지적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혁명적원칙성에 기초한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김영남

주체99(2010)년 6월 2일

평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을 경축하는 집회 이탈리아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과 그이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성과를 경축하는 집회가 5월 1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저작을 그리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집회장에 전시되어 있었다.

집회에는 이탈리아공산주의재건당 로마시 드리온할레구역위원회, 공산주의자당 로마시 드리온할레구역위원회, 주체사상연구위원회, 평화를 위한 학교협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체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었다.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이탈리아공산주의재건당 로마시 드리온할레구역위원회 비서 베지몬탈치노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는 김정일총비서동지의 중국방문성과를 열렬히 축하하며 당창건 65돐이 되는 올해에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탈리아공산주의자당 로마시 드리온할레구역위원회 비서 파비오 케나토는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김정일총비서동지의 선군령도밑에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암살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허덕이고있는 오늘 조선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확고히 고수하면서 경제강국건설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있는 비결은 조선로동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제히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사상, 정칙화하시고는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선포하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에서는 온 사회가 주체사상으로 일체화되고 선군사상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되었다.

조선인민군은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다.

이탈리아주체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 알도 베르나르디는 제국주의혁명세력이 조선을 철색시키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지만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면서 경제강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를 오늘의 복잡한 정세하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정당한 정치방식이라고 찬양하였다. 본사기자

대고조선투쟁의 새 소식 경제적실리가 큰 순환비등증보이라 도입

2. 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최근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는 대형미분탄보이라를 순환비등증보이라로 개조하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한그림의 석탄, 한오트의 전력, 한방울의 기름, 한조각의 강판이라도 아껴 쓰고 있는 자재와 설비, 있는 로터크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여야 합니다.>

순환비등증보이라는 연료에 대한 요구성이 높지 않고 연소효율이 높을뿐 아니라 공해물질방출량이 적다. 부하조절범위가 대단히 넓으며 보이라에서 나온 재를 종합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등 다른 보이라들에 비하여 많은 우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순환비등증보이 기술은 2세대 비등증연소기술로서 깨끗한 석탄연소기술의 하나로 되고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

고 기업소기술개선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미분탄보이라를 대당하게 순환비등증보이라로 개조할 목표를 내세우고 열공학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편관단위들과 긴밀하게 협동하여 개조진무를 힘있게 벌려왔다.

보이라개조를 위한 방안설계 및 최적화를 담당한 열공학연구소 보이라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개조공사의 효과성과 실리, 속도를 최대로 보장하기 위하여 개조되는 보이라에서 순환비등증보이라의 우월성이 최대로 발양되도록 하면서 공사량을 최소로 줄이고 연소효율을 높일것을 기본목표로 내세웠다. 이에 기초하여 과학자들은 현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고 피리는 사색과 람구를 거듭하면서 지난 시기의 경험을 잘 살리고 기업소의 구체적인 현실조건을 출제 반영하여 가장 합리적인 개조방안을 내놓았다.

대안중기련합기업소, 설비조립련합기업소,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자동화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뻐드릴 한 마음한뜻으로 보이라개조를 위한 로와 난관을 뚫고나갔다. 그리하여 보이라개조사업은 짧은 기간에 그리고 첫 착화로 단번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미분탄보이라가 순환비등증보이라로 개조됨으로써 저열탄을 리용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면서도 보이라의 연소효율이 훨씬 높아져 연간 수천의 석탄을 절약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이라의 정상부하 시에는 물론 30%까지의 적은 부하에서도 증유를 전혀 쓰지 않

고 안정한 운전을 보장함으로써 연간 수천의 증유를 절약할수 있게 되였으며 보이라를 착화하는데 쓰이는 증유도 대폭 줄일수 있게 되었다.

특히 석탄을 미분하는 공정대신 간단한 파쇄설비만을 설치함으로써 보이라운영에서 신뢰성을 높이고 보수리력과 자재를 대폭 줄일수 있게 되었다.

미분탄보이라를 순환비등증보이라로 개조하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는 현재 모든 생산공정운영에서 요구되는 증기를 충분히 보충할수 있게 되였으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또 하나의 든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열공학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편관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일군들의 창조적이며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이 귀중한 성과는 화력발전소들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 여러 단위들에 널리 확대 도입하여 큰 실리를 얻을수 있는것으로 하여 그 의의가 더욱 크다. 본사기자 리명희

3월5일청년광산 생산능력확장공사 완공, 조업식 진행

3월 5일청년광산 생산능력확장공사가 완공되어 조업하였다. 높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받아 받고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대상이 새로 건설됨으로써 광물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었다.

5월 30일에 진행된 조업식에는 판계부본 일군들, 광산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업식에서 보고자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적 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벽찬 시기에 광산의 능력확장공사를 훌륭히 완공하고 조업식을 가지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97(2008)년 1월 광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생산을 계통적으로 높이고 광산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키며 광부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 등 나아가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받아 받고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대상이 새로 건설됨으로써 광물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었다.

5월 30일에 진행된 조업식에서 보고자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더 많은 광물을 생산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광산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광물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적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당창건 65돐을 뜻깊게 맞이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새로 조업한 3월5일청년광산 선광장의 일부

미제와 남조선피뢰당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자

평안북도, 자강도, 함경남도, 량강도군중대회 진행

【평양 6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모략책동을 폭로규탄하는 평안북도, 자강도, 함경남도, 량강도군중대회가 1일과 2일에 진행되었다.

대회장들에 모여온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은 신성한 우리 공화국을 거대한 모략사기극을 조작하고 새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고있는 리명박역적패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슴끓이였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받들어 기어이 이 땅우에 통일조국을 일떠세우자!》, 《미제와 남조선호전분자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자!》, 《민족반역자이며 매국노인 리명박역적을 라도하자!》라는 구호관들과 찬반공민의 열렬의 의지가 비친 선전화물들이 대회장들에 세워져있었다.

대회들에는 지방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일꾼들,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평안북도에서

평안북도군중대회에서는 김형해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직장장 류재명,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룡천군 장산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방순화,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 1비서 리도걸,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신의주농업대학 학부장 정철남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남조선호전파들과 미제침략자들의 진해없는 반공화국대결모략책동으로 하여 오 늘 조선훈도정세는 극도로 첨예화 되었다고 하면서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작한 원수들의 망동은 우리에 대한 로폭적인 선전포고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성된 엄청난 사태와 관련하여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위한 원칙적립장을 엄숙히 천명한 조선훈도정세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대통고문,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진폭적으로 지지찬동한다고 말하였다.

은 나라 전체 인민은 지금 적들의 《웅성》에는 무자비한 보복타격으로 대응하며 극악한 전쟁광신자들에게 준엄한 징벌을 안길 태세를 갖추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국의 운명이고 미래의 신인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결사옹위하며 혁명의 수뇌부뒤에 굳게 뭉쳐 준엄높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수호해갈 불타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도내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칙같은 신념을 간직하며 한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마차와 낫을 여섯게 틀어쥐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를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자강도에서

자강도군중대회에서는 박도춘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각계층을 대표하여 강제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오정식, 도청년동맹 1비서 리명형, 강계제 1사범대학 학부장 김선양 등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리명박역적패당과 그와 결탁한 미일침략자들의 반공화국대결모략책동으로 엄청난 정세가 조성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역적패당이 미제의 지령에 따라 처음부터 함침침살전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주려고 획책하였으며 미일침략자들과 함께 국제적인 《제제》에 대해 떠들면서 자라난 조선훈도정세의 불붙는 기세를 날뛰고있는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그들은 락원기계련합기업소와 신의주화장공장을 비롯한 도내 공장, 기업소로동계급은 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하며 태권군 은총,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등의 농업근로자들은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기 위해 영농작업을 힘있게 다그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들은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 부대, 별대대담게 강성대국건설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며 지식인들은 당의 과학기술사상을 받들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함경남도에서

함침침살사건은 리명박역적패당이 저들의 나쁜 전명을 부지하기 위해 조작한 계획적인 음모이며 동족을 해치려고 상전들과 아합하여 꾸민 흉악무도한 남조선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지배인 공승일,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함주군 구상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최정순,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 1비서 한인철,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함흥화학공업대학 소장 주명철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북남관계사에 기록될 특대형범죄를 감행한 리명박역적패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와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있다고 하면서 남조선피뢰당국의 반공화국대결모략책동을 준엄히 단죄하였다.

남조선피뢰당들이 이번이 벌려놓은 대결책동은 그 파멸치성과 무모성, 악랄성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반공화국모략사건들을 능가하는 최대의 팽대국이라고 그들은 까뻐했다.

그들은 민족의 통일문제를 짓밟고 북남관계를 전연파괴로 몰아가는 리명박역도의 죄행은 준엄한 저주와 규탄을 받을것이며 역적패당의 망동은 비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들은 도내 전체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명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야말 혁명적열의에 넘쳐있고있다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리명박역적패당이 내외의 비난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함침침살사건을 우리와 억조대로 전전시키면서 분별을 잃고 내세우고야말 신념과 의지가 담긴 구호들을 힘있게 불렀다.

그들은 락원기계련합기업소와 신의주화장공장을 비롯한 도내 공장, 기업소로동계급은 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하며 태권군 은총,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등의 농업근로자들은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기 위해 영농작업을 힘있게 다그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들은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 부대, 별대대담게 강성대국건설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며 지식인들은 당의 과학기술사상을 받들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합경남도에서

함침침살사건은 리명박역적패당이 저들의 나쁜 전명을 부지하기 위해 조작한 계획적인 음모이며 동족을 해치려고 상전들과 아합하여 꾸민 흉악무도한 남조선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지배인 공승일,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함주군 구상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최정순,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 1비서 한인철,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함흥화학공업대학 소장 주명철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북남관계사에 기록될 특대형범죄를 감행한 리명박역적패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와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있다고 하면서 남조선피뢰당국의 반공화국대결모략책동을 준엄히 단죄하였다.

남조선피뢰당들이 이번이 벌려놓은 대결책동은 그 파멸치성과 무모성, 악랄성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반공화국모략사건들을 능가하는 최대의 팽대국이라고 그들은 까뻐했다.

그들은 민족의 통일문제를 짓밟고 북남관계를 전연파괴로 몰아가는 리명박역도의 죄행은 준엄한 저주와 규탄을 받을것이며 역적패당의 망동은 비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들은 도내 전체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명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야말 혁명적열의에 넘쳐있고있다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리명박역적패당이 내외의 비난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함침침살사건을 우리와 억조대로 전전시키면서 분별을 잃고 내세우고야말 신념과 의지가 담긴 구호들을 힘있게 불렀다.

량강도에서

량강도군중대회에서는 김희택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해산방직공장 근로자 장성두,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해산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회장 김일,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김정숙사범대학 학생 정수향,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해산농림대학 박사원 원장 박관혁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리명박역적패당이 내외의 비난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함침침살사건을 우리와 억조대로 전전시키면서 분별을 잃고 내세우고야말 신념과 의지가 담긴 구호들을 힘있게 불렀다.

이들 단호히 규탄하였다.

그들은 피뢰당역적패당의 망동은 준엄높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참수없는 도발이고 로폭적인 선전포고로서 조국강우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기 위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행위라고 단죄하였다.

거개의 통일년월을 짓밟고 외세와 야합하여 치졸한 모략을 꾸민 피뢰당의 책동은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역적패당이 우리의 경고를 끝내 외면한다면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필승의 신념과 배짱을 가지고 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리며 근로자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대고조로 생산과 건설에서 대고조의 폭풍을 세차게 일 일으켜서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량강도에서

량강도군중대회에서는 김희택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해산방직공장 근로자 장성두,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해산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회장 김일,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김정숙사범대학 학생 정수향,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해산농림대학 박사원 원장 박관혁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리명박역적패당이 내외의 비난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함침침살사건을 우리와 억조대로 전전시키면서 분별을 잃고 내세우고야말 신념과 의지가 담긴 구호들을 힘있게 불렀다.

원썩격멸의 기상으로 당면한 모내기전투를 힘있게

락랑구역안의 협동농장들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애국적열정을 쏟으며 벼를 심고있는 모내기를 전후적으로 다그쳐 실적을 올리고있다. 구역안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당면한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다그쳐 끝내기 위하여 로폭과 기계수단을 집중하여 매일 많은 면적의 논에 모를 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업에서 혁명을 일으키려면 농업지도기관들과 농업부문 일꾼들의 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올해 모내기를 최적으로 질적으로 와다닥 해제하기 위하여 작전을 빈틈없이 하였다. 책임일꾼들은 보여주기사업을 통하여 모든 농장일꾼들이 이미 세운 모내기계획을 다시금 검토하고 부족한것은 보충하면서 일별 부름없이 작정하여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

작전과 지휘를 포전에서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한 모든 일꾼들이 들끓는 포전에 나가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계속할수 있는 방도를 찾고 실천해나가기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지난 기간 모내기를 잘하여 제보당 수확고를 높인 단위들에 내리간 일꾼들은 물대기와 씨베치기 등 조건보장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포착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웠다. 특히 지난 시기 트랙토르수리정비를 예견성있게 하고 운전수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씨베치기를 앞세운 단위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는데 힘을 냈었다.

모든 농장들에서 즉시 그은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농장들에서는 예비부속품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쳤고 트랙토르운전수들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씨베치기를 일정에 맞게 해나갔다. 씨베치기를 확고히 앞세우자 모내기를 최적으로 다그쳐 끝낼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었다.

경영위원회에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논면적이

협동농장 제 2 작업반 3분조에서

보던 작업반장이 만족한 얼굴로 모내는 기계 운전공으로 다음포전으로 넘어간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내기전투장은 더욱 활기차게 된다. 당장엔 65畝이 되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요구를 받들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이들의 마음속에 풍요한 가을을 부르는 모내는 기계의 동음이 하늘가에 메아리쳐간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경일

협동농장 제 1 작업반에서

당장엔 65畝를 넘는 뜻깊은 올해에 알곡생산은 결정적으로 높일 혁명적열정을 안고 금대협동농장 제 1작업반의 농장원들이 모내기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식량문제를 기여이 풀겠다는 혁명적각오와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야 합니다.》

작업반의 초급일꾼들과 농장원들의 가슴은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냄으로써 영랑의 땅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결의를 높이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모내기전투장에서 화신식정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농장원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그들이 모내기에 열정을 일으키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모내기전투에서는 제 2작업반과 제 3작업반이 앞선다. 작업반장들이 앞장서서 안기설동무를 비롯한 농장의 초급일꾼들을 비롯한 이이 트랙토르와 소농기구정비사업도 빈틈없이 해놓았다. 이렇듯 농사차비를 잘 갖추어놓은 작업반원들은 신심에 넘쳐 모내기전투에 전진하였다. 모내기전투가 시작되자 작업반초급일꾼들과 농장원들

협동농장 제 2 작업반 3분조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내기는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협동농장 제 2작업반 3분조 모내기전투장이다.

나뭇기는 붉은 기계발과 모내기전투에 힘있게 호소하는 구조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고 미쳐날뛰는 원수놈들을 짓밟개버리듯 용을 쓰며 씨베치기를 해가는 트랙도 포함에 가득 채웠다. 모내기 고르로운 동음을 리며 기계종계는 모내는 기계, 편이 푸른 주단을 펼쳐도 포전에 꽃히는

협동농장 제 2 작업반 3분조에서

모내기전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내기는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협동농장 제 2작업반 3분조 모내기전투장이다.

나뭇기는 붉은 기계발과 모내기전투에 힘있게 호소하는 구조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고 미쳐날뛰는 원수놈들을 짓밟개버리듯 용을 쓰며 씨베치기를 해가는 트랙도 포함에 가득 채웠다. 모내기 고르로운 동음을 리며 기계종계는 모내는 기계, 편이 푸른 주단을 펼쳐도 포전에 꽃히는

협동농장 제 2 작업반 3분조에서

모내기전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내기는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협동농장 제 2작업반 3분조 모내기전투장이다.

나뭇기는 붉은 기계발과 모내기전투에 힘있게 호소하는 구조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고 미쳐날뛰는 원수놈들을 짓밟개버리듯 용을 쓰며 씨베치기를 해가는 트랙도 포함에 가득 채웠다. 모내기 고르로운 동음을 리며 기계종계는 모내는 기계, 편이 푸른 주단을 펼쳐도 포전에 꽃히는

원썩격멸의 기상으로 당면한 모내기전투를 힘있게

락랑구역안의 협동농장들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애국적열정을 쏟으며 벼를 심고있는 모내기를 전후적으로 다그쳐 실적을 올리고있다. 구역안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당면한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다그쳐 끝내기 위하여 로폭과 기계수단을 집중하여 매일 많은 면적의 논에 모를 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업에서 혁명을 일으키려면 농업지도기관들과 농업부문 일꾼들의 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올해 모내기를 최적으로 질적으로 와다닥 해제하기 위하여 작전을 빈틈없이 하였다. 책임일꾼들은 보여주기사업을 통하여 모든 농장일꾼들이 이미 세운 모내기계획을 다시금 검토하고 부족한것은 보충하면서 일별 부름없이 작정하여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

협동농장 제 2 작업반 3분조에서

보던 작업반장이 만족한 얼굴로 모내는 기계 운전공으로 다음포전으로 넘어간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내기전투장은 더욱 활기차게 된다. 당장엔 65畝이 되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요구를 받들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이들의 마음속에 풍요한 가을을 부르는 모내는 기계의 동음이 하늘가에 메아리쳐간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경일

협동농장 제 1 작업반에서

당장엔 65畝를 넘는 뜻깊은 올해에 알곡생산은 결정적으로 높일 혁명적열정을 안고 금대협동농장 제 1작업반의 농장원들이 모내기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식량문제를 기여이 풀겠다는 혁명적각오와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야 합니다.》

작업반의 초급일꾼들과 농장원들의 가슴은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냄으로써 영랑의 땅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결의를 높이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모내기전투장에서 화신식정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농장원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그들이 모내기에 열정을 일으키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모내기전투에서는 제 2작업반과 제 3작업반이 앞선다. 작업반장들이 앞장서서 안기설동무를 비롯한 농장의 초급일꾼들을 비롯한 이이 트랙토르와 소농기구정비사업도 빈틈없이 해놓았다. 이렇듯 농사차비를 잘 갖추어놓은 작업반원들은 신심에 넘쳐 모내기전투에 전진하였다. 모내기전투가 시작되자 작업반초급일꾼들과 농장원들

협동농장 제 2 작업반 3분조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내기는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협동농장 제 2작업반 3분조 모내기전투장이다.

나뭇기는 붉은 기계발과 모내기전투에 힘있게 호소하는 구조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고 미쳐날뛰는 원수놈들을 짓밟개버리듯 용을 쓰며 씨베치기를 해가는 트랙도 포함에 가득 채웠다. 모내기 고르로운 동음을 리며 기계종계는 모내는 기계, 편이 푸른 주단을 펼쳐도 포전에 꽃히는

협동농장 제 2 작업반 3분조에서

모내기전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내기는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협동농장 제 2작업반 3분조 모내기전투장이다.

나뭇기는 붉은 기계발과 모내기전투에 힘있게 호소하는 구조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고 미쳐날뛰는 원수놈들을 짓밟개버리듯 용을 쓰며 씨베치기를 해가는 트랙도 포함에 가득 채웠다. 모내기 고르로운 동음을 리며 기계종계는 모내는 기계, 편이 푸른 주단을 펼쳐도 포전에 꽃히는

협동농장 제 2 작업반 3분조에서

모내기전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내기는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협동농장 제 2작업반 3분조 모내기전투장이다.

나뭇기는 붉은 기계발과 모내기전투에 힘있게 호소하는 구조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고 미쳐날뛰는 원수놈들을 짓밟개버리듯 용을 쓰며 씨베치기를 해가는 트랙도 포함에 가득 채웠다. 모내기 고르로운 동음을 리며 기계종계는 모내는 기계, 편이 푸른 주단을 펼쳐도 포전에 꽃히는

협동농장 제 2 작업반 3분조에서

모내기전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내기는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협동농장 제 2작업반 3분조 모내기전투장이다.

나뭇기는 붉은 기계발과 모내기전투에 힘있게 호소하는 구조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고 미쳐날뛰는 원수놈들을 짓밟개버리듯 용을 쓰며 씨베치기를 해가는 트랙도 포함에 가득 채웠다. 모내기 고르로운 동음을 리며 기계종계는 모내는 기계, 편이 푸른 주단을 펼쳐도 포전에 꽃히는

영예의 혁신자들

벽지도협동농장 제 2 작업반 3분조장 리순실동무는 책임성 높은 분조장으로 농장적으로 소문이 났다.

당장엔 65畝를 넘는 뜻깊은 올해농사를 잘 짓기 위해 그는 모내기를 최적으로 끝냄으로써 영랑의 땅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결의를 높이고있다.

그는 늘 포전에서 살다싶이 하며 모내기를 질적으로 하도록 농장원들을 이끌어주고있다.

그는 늘 포전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불타는 열정을 안아오며 높은 의지로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쳐 모내기전투장은 더욱더 활기차고 포전들은 시간이 다르게 푸르러가고있다.

본사기자 한명신



리순실동무 김문교동무 조윤철동무 한정희동무 김정옥동무

본사기자 김 룡

인민들의 기쁨과 생활의 량만 넘쳐나는 개선청년공원

어버이사랑 전하는 문화휴식터

우리 당의 뜨거운 온정속에 새롭게 변모된 개선청년공원에 인민의 기쁨넘친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너무도 희한한 전변이어서 보는 사람마다, 찾는 사람마다 경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는 개선청년공원!

사람들은 다는 모르리라, 자라도 그 자리, 이름도 이전그대로이지만 그야말로 천지개벽된 개선청년공원이 어떻게 되어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세상에 대고 자랑할만한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다시 태어날수 있었는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개선청년공원이 현대적인 문화휴식터로 변모된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세심한 지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머지않아 강성대국의 복된 세상에서 살게 될 우리 인민에게 더 좋고 명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몸소 개선청년공원을 최상의 수준에서 개건할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 개건공사를 질적으로 하도록 온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린 뜻깊은 곳에 자리잡고있는 개선

청년공원을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오신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을 길이 전하고 우리 인민의 문화휴식이 더욱 크게 이바지하는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새롭게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장군님!

강성대국건설사업에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설을 아로새긴 개선청년공원개건공사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공원개건공사는 이미 있던 유희기구와 시설물들을 통째로 들어내고 이전보다 더 넓어진 공원부지에 현대적인 유희기구와 봉사망, 문화휴식시설들을 새롭게 얹어야 하는 매우 큰 공사가였다. 혁명적근인정신으로 무장된 군인건설자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무조건 지키기 위해 관철하고야말 결사의 각오가 뜨겁게 끓어올랐다. 힘있는 부대, 과감

있는 부대라는 값높은 평가를 주시며 선군시대를 빛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결연결집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은 군인건설자들에게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기동건설공사와 현지의 조건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던 수십차례 유희기구설치작업을 백두산혁명강군의 담벽과 배짱, 우리 식의 독특하고 기발한 공법으로 세차게 성공시키고 몇달은 실패를 겪어오던 이 한 유희기구를

림작업을 불과 수십일동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해제된 사실들은 우리 군인

건설자들이 개건공사의 나날에 창조한 무수한 위훈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모란봉구역 건설자들도 군인건설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나갔다. 이렇듯 날과 달을 주름잡으며 벌린 건설자들의 투쟁속에 개선청년공원은 공사가 시작되던 몇달 안되는 짧은 기간에 자기의 이전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희한하게 변모될수 있었다. 그것은 개건청년공원개건공사를 몸소 받기하고 공사시작으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며 공원이 최상의 수준에서 개건되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였다.

형성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유희기구의 종류와 그 배치, 봉사망의 형성과 공원의 불장식에 이르기까지 열일이 앞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투, 대중적인 것이 되도록 공사의 전과정을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개선청년공원은 어른뿐만아니라 아이들도 즐겨찾는 곳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유희기구를 따로 설치하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인민에게는 종합적인 문화휴식터의 특성을 갖게 하려 하신 뜻을 그대로 새겨 넣으시며 대대적으로 개건공사를 추진해주시고 오라기까지 오라기까지 보내주시였다. 그리고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는 《개선청년공원》이라는 사랑의 친필까지 안겨주시어 공원현판이 세월과 더불어 길이 빛나도록 해주시였다.

지난 4월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불빛길은 모란봉기슭에 선군시대를 빛내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새롭게 일떠선 개선청년공원을 몸소 찾아주시였다. 이날 장군님께서서는 최상급의 유희오락시설들을 리용하여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있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인민에게 충분한 문화휴식을 보장해줄수 있게 된대 대해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세상에 자랑할만한 한 문화휴식터-개선청년공원을 받아안은 우리 인민은 자신께서는 명절날, 휴식일이 따로 없이 선군혁명명도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면서 우리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에게 더 좋은 생활과 휴식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어버이장군님을 우러러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있다.

북방은 이 땅의 인민들과 청소년들을 향해 문을 활짝 연 개선청년공원에서 지금 사람들의 기쁨넘친 웃음소리가 수도의 하늘까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고있다. 그 환희의 메아리와 더불어 개선청년공원은 인민을 위한 절세의 위인의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를 전하며 길이 빛날 것이다.

본사기자 리 남 호

첫 인 사

개선청년공원을 찾으신 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공원에 새로 건설된 지점집에 들리시였다.

꿈결 에도 그리던 어버이장군님을 몸 가까이 모시기 된 봉사자들이 장군님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그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수고들 한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었던 감각과 기쁨을 밤새워 나누고 다음날 이른 새벽에 공원에 나온 개선청년공원 종업원들의 눈앞에 아름다운 꽃바다가 펼쳐졌던것이였다. 그들은 공원을 꾸는것만 같아 눈을 비비며 진달래와 개나리를 비롯하여 여기저기에 활짝 핀 아름다운 꽃

들 보고 또 보았다. 올해에는 늦추위와 변덕스러운 일기로 하여 4월 중순이 지난 때에도 꽃이 피지 않았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시자 기다렸던듯이 공원에 일찍이 꽃바다가 펼쳐졌다. 그것은 천지조화로운 불 일 아니었다.

유회시설에서 식당들로, 식당들에서 다시 유희시설들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즐겁게 이어지는 개선청년공원. 개선청년공원의 특색의 하나나 공원에 있는 금양봉사망들에 다른 곳의 식당들과는 달리 의자가 없는것이다. 거기에도 인민들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사랑이 뜨겁

신기 한 꽃바다

종업원들은 신기하게 피어난 꽃들을 소중하게 안아보며 속삭이였다.

자나깨나 인민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시리 로코를 바치거시는 우리 장군님의 사랑과 헌신에 자연도 감복하여 꽃바다를 펼쳤다.

의 봉사망들은 유희시설을 리용하던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의자가 없어도 된다. 그야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리용할수 있다.

그러시던 선자리에서 음식을 드는데 편리하게 식탁의 높이를 잘 조절해대어 가르쳐주시였다.

본사기자 장 은 영

더 높 이 날 아 라

3중회전반과 배그네, 판성 비행단차와 케도회전반... 그중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것은 공원의 한복판에 우뚝 솟아있는 금강하람이다. 금강도로 수십m 높이의 탑을 오르내릴 때의 그 쾌감을 어디에 비기라. 한번 왔던 사람들은 두 번째만 꼭 다시 타고본 한다. 처음에는 손에 땀을 쥐고 눈을 감고서야 왔다면 다음번에는 와-와 합성을 지르고 손까지 흔들며 기뻐하는 사람들.

저 하늘의 흰구름을 잡아보고 싶은듯 손을 뻗지는 청년들도 있고 아름다운 평양의 모습을 한눈에 바라보며 황홀한 감정에 휩싸여있는 사람들도 있다. 한 소년은 금강하람을 타고 고난 소감에 대하여 묻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 더 높나 내가 더 높나 겨루고싶었습니다.》

한 학생은 오늘 이렇게 금강하람을 타고보니 꼭 비행사가 되고싶은 열망이 가슴 가득 차오른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안겨주시기 위해 그 무엇보다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저 하늘은 높다. 하지만 하늘보다 높은것이 인민을 위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뜻이 아니라.

본사기자

낮이면 꽃바다, 밤이면 불야성

온갖 꽃 만발한 모란봉기슭에 어둠이 깃들면 삼시에 불의 바다, 불의 세계가 눈부시게 펼쳐진다. 오색형용한 광원과 공간을 가득 채우며 질주하는 신비로운 광선으로 한껏 채색된 개선청년공원!

개선청년공원의 불장식은 건축물에 대한 불장식을 비롯하여 도시들에서 흔히 보게 되는 불장식과 현저히 다르다. 정적인 대상들과 동적인 대상들이 한데 어울린 공원의 특성에 맞게 불장식을 이채롭게 함으로써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장식효과를 나타냈것이다. 공원의 곳곳을 대낮처럼 밝히는 투광형식의 불장식과 함께 건물들과 목지, 나무들에 대한 개별적인 불장식을 잘하여 매 대상들의 개성을 뚜렷이 하면서도 공원 전체 불장식의 통일성과 일체성이 실현되도록 하였다.

입과 빠른 회전으로 하여 불장식의 돌출감과 리듬감이 최대 한으로 살아남으로써 유희기구를 리용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저도모르게 희열과 광명, 행복의 무아경에 잠겨들게 한다. 개선청년공원의 불장식은 날로 발전하는 우리 나라 불장식기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훌륭한 화폭이다.

글 본사기자 윤 지 혜 사진 최 충 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가장 영예로운것으로 여기고 오직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있는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충실히 일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

정 다 운 종 소 리

대성구역 룡흥교식료품상점에서

소리 아 빠르마당에 울려간다. 이등봉사매대차앞에 모여온 마을의 가정주부들에게 여러가지 맛좋은 반찬이며 구수한 국들을 친절하게 봉사하는 녀인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활짝 어렸다. 그들은 대성구역 룡흥교식료품상점의 봉사자들이다. 이들은 매일 이처럼 아침마다 마을과 마을을 돌며 이등봉사자를 진행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진행되는 이등봉사로 하여 동안의 많은 가정들이 아침식사준비와 식생활에서 큰 도움을 받고있다. 가정에서는 이들 역시 주부들이다. 그러나 우리 녀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며

크 나 큰 그 사 랑 에 보 답 하 리

《어버이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개선청년공원이 이렇게 훌륭하고 희한할줄은 정말 몰랐다. 불야성을 이룬 공원에서 현대적인 유희기구를 타는 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민들을 위하여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해보시는가를 다시금 메부로 느끼었다. 더구나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인민들이 리용할 공원에까지 찾아오시어 일일이 돌아보시고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으니 우리

빛나는 로 력적성 과로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하여 공원에 들어설 때에도 공원을 떠나를 때에도 걸음을 쉬이 떼지 못하였다. 나는 인민을 하느님처럼 여기시며 온갖 락을 안겨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을 받들어

용 감 성 의 활 무대

개선청년공원으로는 남다른 로소 누구나 찾아온다. 우리 대학생들도 이곳을 즐겨 찾는다. 나는 공원에서 현대적인 유희기구를 리용할 때마다 자기가 더욱 많이 키치고 더 용감해지는것을 느낀다. 왜냐하면 이곳의 유희기구들이 거리가 우리 청년들의 심에 맞기때문이다. 특히 금강하람과 판성비행단차가 제일 마음에 든다. 우리 청년들의 심리에 맞는 유희기구라고 말할수 있다. 그것을

조국보위교양을 실속있게

혁명적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학생들의 가슴을 열어버리게 하였다. 개선청년공원은 인민군대에 입대한 졸업생들이 보내온 편지를 독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졸업생들의 소식을 담은 편지들과 군사부무기간 훈련에서 더 많은 말을 들려 주며 영웅이 되어 모교로 돌아오겠다는



귀중한 조국을 위해 청춘도 생명이 다 바쳐 싸운 영웅전사의 조국수호정신을 적극 따라배우고있다. 리진명 적음

조국보위교양을 실속있게

혁명적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학생들의 가슴을 열어버리게 하였다. 개선청년공원은 인민군대에 입대한 졸업생들이 보내온 편지를 독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졸업생들의 소식을 담은 편지들과 군사부무기간 훈련에서 더 많은 말을 들려 주며 영웅이 되어 모교로 돌아오겠다는

까 라 르 국 가 추 장 이

우리 나라 외무성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6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셰이크 하미드 빈 할리파 알 라니 카타르 국가 추장이 5월 31일 《제10차 도하연단》에 참가하고있는 김형준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의 무성대표단을 만나 친선

재일조선교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도착

조국방문단이 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셰이크 하미드 빈 할리파 알 라니 추장에게 면담이 있었다. 추장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였으며 밀것을 대표단장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복잡한 국제환경속에서도 카타르와 조선사이의 관계는 좋게 발전하고있다고 하면서 이 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웰남대사관 성원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

엔딩 조영참사를 비롯한 주요 웰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2일 사리원시 친선웰남친선 미곡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손님들을 위대한 수령 김정일 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명에서 사는 공지를 안고 단명한 농사일을 다그치고있는 농장원들의 일손

조국보위교양을 실속있게

혁명적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학생들의 가슴을 열어버리게 하였다. 개선청년공원은 인민군대에 입대한 졸업생들이 보내온 편지를 독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졸업생들의 소식을 담은 편지들과 군사부무기간 훈련에서 더 많은 말을 들려 주며 영웅이 되어 모교로 돌아오겠다는

조국보위교양을 실속있게

혁명적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학생들의 가슴을 열어버리게 하였다. 개선청년공원은 인민군대에 입대한 졸업생들이 보내온 편지를 독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졸업생들의 소식을 담은 편지들과 군사부무기간 훈련에서 더 많은 말을 들려 주며 영웅이 되어 모교로 돌아오겠다는

조국보위교양을 실속있게

혁명적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학생들의 가슴을 열어버리게 하였다. 개선청년공원은 인민군대에 입대한 졸업생들이 보내온 편지를 독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졸업생들의 소식을 담은 편지들과 군사부무기간 훈련에서 더 많은 말을 들려 주며 영웅이 되어 모교로 돌아오겠다는

주객이 전도된 강도적 논리

미국을 비롯한 일부 적대세력들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검검토회에서 또다시 우리의 《핵문제》를 결코 돌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우리는 조약위반에 따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쫓아다니다. 그런가하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핵무기를 포기하고 조약에 복귀해야 한다는 등의 여론을 내세웠다.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사태를 왜곡시키려는 고의적인 행동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 그들의 속심은 어떻게 하나 우리에게 《핵법인》의 감투를 씌워 저들의 반공화국담을 합리화하고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수법은 오늘날 같은 밝은 세상에서 절대로 통할 수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와 핵무기보유에 대해 어찌저찌구 할 권리도 명분도 없다. 우리의 조약탈퇴와 핵무기보유에 대해 시비증상하는 것은 조선반도 핵문제발생의 근원과 그 역사적과정을 외면한 황당무계한 넋두리이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순차적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 나라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와 핵무기보유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공화국이 조약에서 탈퇴하도록 떠밀리는 미국이며 핵무기를 보유하게 만든 것도 다름이 없다. 이번 기회에 미국에 그러한 처사에 대해 다시한번 상급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핵위협을 가해왔다는 것은 세상사다 아는 사실이다. 이미 지난 조선전쟁 때부터 우리 인민에게 핵공격을 가한 미국은 1950년대 후반기부터 남조선에 핵무기들을 비법적으로

몰어들이기 시작하였으며 그 수는 1970년대 중엽에 벌써 1 000 여개에 달하였다. 남조선은 극동최대의 핵화약고, 핵전초기지로 진전되었다. 미국은 해마다 방대한 핵무기들을 동원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여왔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핵위협공작이었다.

미국의 대조선핵위협은 부위행정부 시기에 와서 극도에 이르렀다. 부위행정부의 정권 초기 바르세 클린턴행정부 시기에 채택된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조미기본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을뿐 아니라 우리 나라를 핵선제공격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이 전혀 없지 않았지만 그 어떤 국제조약도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오히려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대조선 핵선제공격과 강권정책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악용하였다.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조치는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최고이익을 지키기 위한 지위적 조치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용당한 자주권권리행사가였다.

우리 공화국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는 철저히 합법적이다.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조약을 위반하고 그 때문에 핵권리장점이 야기되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있는것이 명백한것은 주객이 전도된 강도적 논리이다.

우리는 이제 조약에 있는 조건에서 그 어떤 조약상의무에도 구속되지 않을뿐 아니라 그 누구의 어떤 견해도 개입하지 않는다. 명백히 말하자면 우리 공화국은 나라의 최고이익을 지키는데 필요한만큼 핵억제력을 계속 확대강화해나갈 수 있는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우리는 이 권리를 정당당당하게 행사해나갈것이다.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조약을 위반하고 그 때문에 핵권리장점이 야기되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있는것이 명백한것은 주객이 전도된 강도적 논리이다.

사실 조약위반과 핵군비경쟁, 핵전파에 대해 말한다면 그 장본인은 다름이 없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40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지구상의 핵무기는 첼레피는커녕 그 파괴력이 훨씬 더 커졌다. 그것은 전적으로 조약상 핵군축의무를 걸머진 미국이 그에 배치되려 핵무기증강력을 강행한데 기인된다.

미국은 핵무기를 세계적전략실현의 기동으로 삼고 방대한 자금을 탕진

하면서 새로운 핵무기들을 끊임없이 개발, 생산하며 그 현대화를 다그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가지고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방대한 핵무력을 세계 여러 지역에 배치해놓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한 핵선제공격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보이고있다. 미국의 무분별한 핵도합책동으로 하여 세계에는 새로운 핵군비경쟁과 핵전쟁위험이 조성되고있다.

핵문제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면서 세계적 핵전파방지체제를 파괴하는 주범도 미국이다. 현실은 바로 이렇다. 미국이 《조약위반》이니, 《핵전파》니 뭐니 하면서 우리 나라를 핵무기로 걸고드는것은 핵군비경쟁과 핵전파의 장본인으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고 그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한 파렴치하고 비열한 술책이다.

조선반도비핵화는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목표이다. 조선반도비핵화가 실현되지 않으면서도 나라의 핵무기 책임을 느껴야 한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조선반도는 우리 공화국을 암살할것을 꾀하는 미국에 의해 언제 핵전쟁의 불길이 터질지 모를 위협만만한 사태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핵억제력을 포기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국가의 최고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위력한 보검이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믿음직한 방패이다. 조선반도비핵화가 실현되면 미국 핵위협과 대조선적대시정세가 종식되어야 한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은 이것을 푼다로 알고 자기 할바를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리 학 남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선군조선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선군조선

국제사회계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서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며 자기 발전의 찬란한 전성기를 펼쳐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그 비결을 경에 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쳐치시는 선군정치에서 찾았었다.

단마르크스론 《아바이선》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자기의 력사에 오로지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선군조선이라는 세계적인 현실을 생각할수록 무엇이냐?

지난 세기 말엽 동유럽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파된 후 제국주의 련합세력의 총공세가 조선에 집중되어 조선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운동의 선봉선에서 투쟁하는 모든 나라의 주민들을 이끌고가는 힘의 원천이라고 찬양하였다.

노르웨이공산당 의스트롤드 주위회와 위원장과 노르웨이 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격사의 모진 시련과 도전을 격파히 짓부시면서 승승장구하는 조선혁명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매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동지는 선군으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주시는 강철의 명장이요 선군의 보검으로 강성대국건설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창

오날》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그의 선군령도는 조선이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전환기,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현실을 펼쳐 한 결정적이라고 말하였다.

나이제리야신문 《오르저버》는 김정일각하의 선군정치는 만사람을 매혹시키고 국제사회의 찬탄을 불러일으켰다고, 조선은 사회적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끊임없는 승리를 이룩하고 있다. 선군정치는 김정일각하의 위대한 명도술의 결실이라고 전하였다.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는 세계적인 현실을 끌고있는 김정일각하의 선군정치가 조선은 경이적인 성과물을 거두고있다. 이것은 보다 뛰어난 군사전략가, 정치가로서 김정일각하의 위대성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조선은 령도와 인수로 볼 때 제국주의 압살책동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조선사회주의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 힘의 원천이라고 찬양하였다.

노르웨이공산당 의스트롤드 주위회와 위원장과 노르웨이 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격사의 모진 시련과 도전을 격파히 짓부시면서 승승장구하는 조선혁명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매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동지는 선군으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주시는 강철의 명장이요 선군의 보검으로 강성대국건설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창

본사기자

조선의 정당한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과 외무성 대변인담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변인성명 등 지지하여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가 5월 24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대변인성명과 외무성 대변인담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변인성명을 전적으로 그리고 진실로 지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천안》의 침몰이 조선과 관계되어 있다는 《물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방위원회의 검열단을

남조선현지에 파견할것이라는 정정당당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현지에 조선의 검열단을 들어가는것을 거부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그 무엇인가를 숨기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들이 제시한 《증거물》이란 어디서 주어온것인지 알수 없는것들이다. 《천안》호침몰이 정세를 악화시키기 위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의도적인 모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시책들을 당

장 지지하고 사건에 대한 폭폭한 조사를 진행할것을 요구한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영국정부와 보도수단들도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책동에 부채질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조선에 새로운 제제를 가하는 경우 지위적조치를 위하여 《보복》에는 보다 강도는 높은 보복으로 대항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의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손을 떼라!

단마르크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는 미국과 리명선에 파견할것이라고 통지하

었다. 그러나 리명박적색배당은 그 무슨 《보복》에 대하여 제지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모략전을 벌이고있다.

미국도 이에 합세해나서고 있다. 이로 하여 오늘 조선반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었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공화국에 대한 《보복》과 《제제》를 때려 버리고있는 위험한 책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본사기자

이스라엘의 위협과 봉쇄책동을 규탄

레바논대통령 미셸 슐레이만이 5월 28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위협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이 인도주의원 조물자를 실은 배를 팔레스티나의 가지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그것은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정책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이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거절해왔다고 하면서 이를 반대해결하는 자기 나라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일본 오키나와현 지사 정부의 으르렁 결정에 항의

일본 오키나와현 지사가 5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으르렁 결정에 항의하였다. 그는 당국이 《현지와와의 총 분한 의사소통과 동의도 없이 머러너머에서 합의하였다.》 후엔미마군지사설지를 끝내고 현의 나고시 캠프 슈와브연

일본 오키나와현 지사 정부의 으르렁 결정에 항의

안지역으로 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혹독한 조치로 단죄하였다. 그는 당국이 《현지와와의 총 분한 의사소통과 동의도 없이 머러너머에서 합의하였다.》 후엔미마군지사설지를 끝내고 현의 나고시 캠프 슈와브연

화산 분출

에파도르에서 5월 26일 동구라우아화산이 분출하였다. 화산이 분출하면서 화산재가 7km 높이에까지 뿜어왔으며 유람이 흘러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화산주변지역 주민들을 긴급대피시키는 등 조치가 취해졌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향의 시위와 파업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5월 20일 당국의 으르렁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파업이 벌어졌다. 로조단체의 호소에 따라 일어난 파업에는 2만여명의 각 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거리들에 펼쳐나와 시위를 벌리면서 임금삭감과 세금상승 등 당국의 권속조치로 자기들의 생활처지가 더욱 악화되는데 대해 항의하고 이를 당장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파업으로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자동차와 철차운행이 마비

최고 전문가들은 심연속에서 허덕이는 자본주의경제

최고 전문가들은 세계를 휩쓴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있기 위하여 각국의 노력으로 일련의 경제회복조치를 이어나갔지만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금융위기의 타격으로 침체된 유럽동맹 나라들의 경제회복은 동맹내 총생산액의 약 5%에 불과한 손실을 가져왔다. 이것은 이 전에 유럽동맹이 겪은 3차례의 경제회복의 평균손실액보다 3배 이상 많은것이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유럽동맹이 가까운 기간내에 경제성장을 이룩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성원국들의 경제회복의 길이 의연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약한 금융제제, 대폭 늘어난 재정적자도 유럽동맹 나라들이 큰 타격을 받고있다. 유럽동맹 성원국들이 수조€의 자금을 출자하여 금융기구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지만 금융시장은 여전히 위험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에 터진 두바이채무위기를 통해서도 그것을 알수 있다. 아랍장주국인방의 《두바이 월드》회사가 채권자들에게 진 600억US\$규모의 채무상환을 연기해줄것을 요청한것을 발단으로 터진 두바이채무위기로 하여 유럽과 세계금융시장에서 커다란 파동이 일어났다. 얼마전에는 그리스에서 국가부도위기가 발생하였다. 이로 하여 유럽이 크게 뒤흔들었다. 그에 의하면 지난 해 그리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액의 근 130%에 달하였으며 정부의 재정적자는 12.5%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치들은 유럽동맹이 규정한 재정기준을 2~3배나 넘어선것으로 된다. 그리스는 올해에 760억US\$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

내고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유럽 나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나라들에서는 올해에 경제가 더욱 악화될것에 예견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금융위기의 타격으로 침체된 유럽동맹 나라들의 경제회복은 동맹내 총생산액의 약 5%에 불과한 손실을 가져왔다. 이것은 이 전에 유럽동맹이 겪은 3차례의 경제회복의 평균손실액보다 3배 이상 많은것이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유럽동맹이 가까운 기간내에 경제성장을 이룩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성원국들의 경제회복의 길이 의연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약한 금융제제, 대폭 늘어난 재정적자도 유럽동맹 나라들이 큰 타격을 받고있다. 유럽동맹 성원국들이 수조€의 자금을 출자하여 금융기구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지만 금융시장은 여전히 위험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에 터진 두바이채무위기를 통해서도 그것을 알수 있다. 아랍장주국인방의 《두바이 월드》회사가 채권자들에게 진 600억US\$규모의 채무상환을 연기해줄것을 요청한것을 발단으로 터진 두바이채무위기로 하여 유럽과 세계금융시장에서 커다란 파동이 일어났다. 얼마전에는 그리스에서 국가부도위기가 발생하였다. 이로 하여 유럽이 크게 뒤흔들었다. 그에 의하면 지난 해 그리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액의 근 130%에 달하였으며 정부의 재정적자는 12.5%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치들은 유럽동맹이 규정한 재정기준을 2~3배나 넘어선것으로 된다. 그리스는 올해에 760억US\$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

원국들의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그것이 사회정치적위기를 몰아오리라것은 변하다.

원국들의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그것이 사회정치적위기를 몰아오리라것은 변하다. 끊임없이 높아지는 실업률도 자본주의 나라들의 경제회복에 큰 장애로 되고있다. 지난 5월 7일 미로동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에 미국의 비농업부문에서 실업률이 9.9%로 증가하였다. 전문가들은 미국경제의 회복추이가 아직 안정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할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리스에 대한 유로지역에상구조가 처음에 예견했던것보다 2배가량 늘어난 사정 때문이었다. 지금 그리스에 대한 자금지원문제를 놓고 유로지역내 나라들 사이의 견상이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얼마전 독일뿐만아니라 프랑스대통령은 그리스에 대한 자금지원계획을 신속히 리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결심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그리스에 대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그리스에 대한 강硬的한 반발이 일고있다. 사태가 심각한데로 부터 지난 5월 9일 국제통화기금은 그리스에 앞으로 3년동안 300억€에 달하는 차관등을 제공하라는것을 승인하였다. 그리스에 뒤이어 아일랜드와 에스빠냐 그리고 포르투갈에서도 금융위기가 일어났고 있다. 한편 시리아의 불안정으로 랠스카와 마자르, 세조프 등 동유럽 나라들의 화폐들도 위기를 받고있다. 얼마전 유럽의회는 올해에 유럽동맹 성원국들의 재정적자가 7.5%를 달할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이역지구에도 미치는 경우 유럽동맹 성

로씨아전문가 함선침몰사건 《조사결과》에 의혹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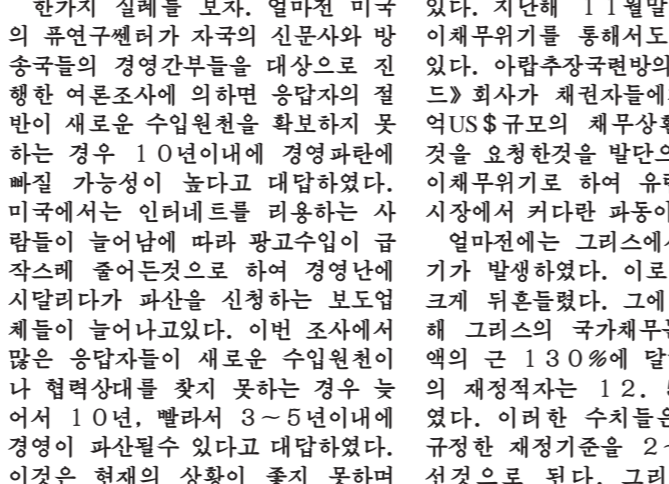
5월 31일 로씨아의 엔메 웨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과학원 연구원수 조선연구센터 상공연구사 콘스탄틴 아슬로브그 신론 《모스콥스키 프소틀레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함선침몰사건과 관련한 남조선 당국의 주장에 강한 의혹을 표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결론》은 남조선과 다른 나라들에서 매우 강한 불신을 자아내고있다. 로씨야와 중국은 이 《결론》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 《증거물》과 사실들이 남조선 측이 그러한 정황에 맞지 않다고 보니 의문이 수없이 발생하고있다. 실제로 어찌서 사법뿐만 아니라 조교는 한명도 죽지 않았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리를 새로 조성하였다. 이것은 그 전말에 비해 14.5% 더 많았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정부가 최근 수도에서의 새로운 금원규정을 발표하였다. 이번 규정은 2005년에 제정된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모든 공공건물들에 사용금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한다. 베르데잡에서 베르데잡에서 4개의 풍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섬들에 일어서게 되는 이 발전소들의 총발전능력은 2만 5000kw에 달하게 된다. 본사기자



뫼르끼에탄부들 로동조건개선을 요구하여 파업



본사기자